

반도체

비중확대 (유지)

이 승 우

02 6915 5771
swleesw@ibks.com

이 양 중 (RA)

02 6915 5666
yj.lee@ibks.com

10월 후반 DRAM 고정가 포함 / 전일 현물가는 반등

- DRAmEX 발표 10월 후반기 DRAM 고정가는 포함세 (4GB 모듈 32달러, 2Gb 칩 1.84달러)
- PC 업체들이 DRAM 메이커들과 이미 10월초에 공급 가격을 일부분 확정(lock-in)해 놓았기 때문
- 삼성전자가 12라인에서 DRAM을 생산한다는 루머가 있으나, 회사측은 이 내용을 부인
- 16라인의 DRAM 투자도 캐파 확대보다는 미세공정에 따른 15라인의 캐파감소를 보조하는 역할
- 단기 노이즈에 일희일비하기 보다는 과점체제로 변화하는 메모리의 구조적 변화를 긍정적으로 평가

10월 후반기 DRAM 고정가 포함

10월 후반 DRAM 고정가격은 DDR3 4GB 모듈 32달러, 2GB 모듈 17.75달러, 4Gb 칩 3.69달러, 2Gb 칩은 1.84달러로 이전과 동일 수준을 유지했다. 소폭이나마 상승을 기대했기 때문에 아쉬운 면이 없진 않지만, 지난 5월 이후로는 가격이 월 1회만 변화되고 있었기 때문에 지나치게 민감하게 반응할 필요는 없다. 또한, SK하이닉스의 중국 팹 화재 이후 가격인상에 대해 PC 업체들이 적잖이 반발했었고, 이로 인해 이미 10월초에 4분기 공급가격의 일부 물량 가격을 확정(lock-in) 시켜놓았던 것이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인다.

삼성전자 정말 DRAM 캐파 늘리는 것인가? 아닌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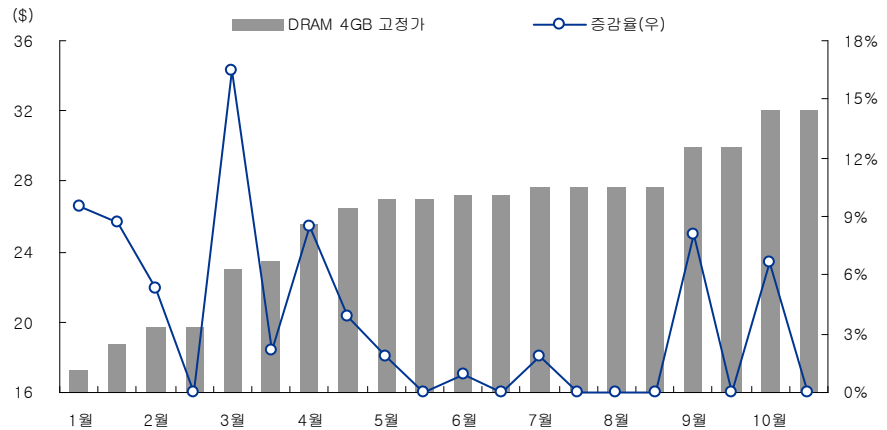
한편, 삼성전자가 NAND 생산라인인 16라인과 12라인에서 DRAM 생산설비를 재가동했다는 루머성 주장이 있다. 요지는 삼성전자가 DRAM 캐파를 60~70K 정도 늘렸다는 것인데, 이는 결국 SK하이닉스의 공장이 정상화되는 시기와 맞물려 DRAM 아웃풋이 대폭 증가할 것이기 때문에, 내년 PC DRAM 수급의 악화와 가격하락은 피할 수 없다는 것이다. 그러나, 16라인의 DRAM 투자는 미세공정 전환에 따라 15라인의 아웃풋 캐파가 감소하는 것을 막기 위한 일종의 보조라인 개념의 투자라는 점에서 캐파 확대로 해석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또한, 12라인에서의 DRAM 생산에 대해서는 회사측에서 사실이 아니라고 확인해주었다. 만약, 루머에서 주장하는 내용이 사실이라면, 결국 삼성전자가 거짓말을 한다는 얘기인데 삼성이 그렇게 할 이유도 없고, 전략적으로 그 같은 선택을 할 가능성도 거의 제로에 가깝다. 따라서, 우리는 시중에서 제기되는 루머의 주장은 사실이 아닌 것으로 판단한다.

과점화 체제로 변화하고 있는 메모리의 구조적 변화에 초점을 둘 필요

물론 우리도 PC DRAM 가격은 SK하이닉스의 아웃풋이 정상화되면서 점차 하락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루머에서 주장하는 것은 사실과 거리가 있다. 결국 DRAM 가격은 급락보다는 안정세 내지 완만한 하락 흐름을 보이게 될 것이다. 이런 가운데, 최근 조정세를 보였던 DRAM 현물가격은 전일 2Gb가 2달러를 깨고 내려가자 4% 이상 비교적 큰 폭으로 반등하는 모습을 보였다. 단기적으로는 여러 가지 노이즈가 있을 수 밖에 없다. 따라서, 이 같은 노이즈에 일희일비하기 보다는 중장기적으로 과점화 국면에 들어서고 있는 메모리 산업의 구조적 변화를 보고 투자하는 시각이 필요해 보인다. 반도체 섹터에 대해 긍정적인 전망을 유지한다.

5월 이후 고정가 변화는
월 1회로 줄어들고 있는
흐름이므로, 10월 하반기
가격이 보합을 유지한 것에
대해 너무 민감하게 반응할
필요는 없을 듯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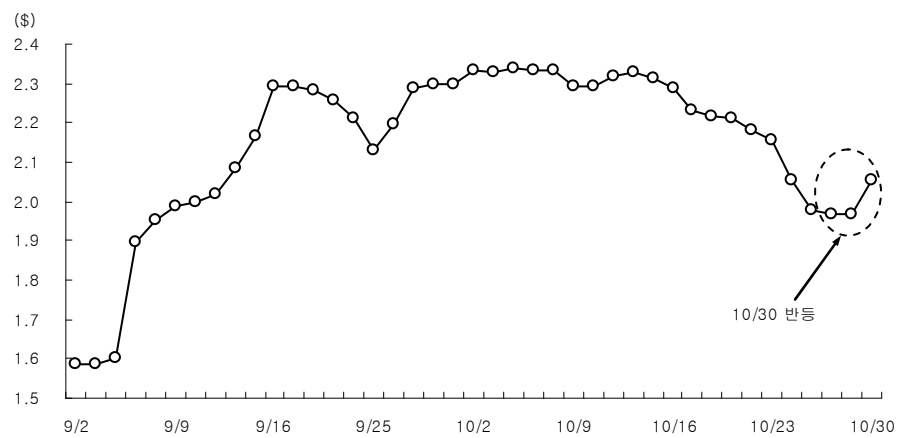
그림 1. DRAM 고정거래가격 동향 (DDR3 4GB 모듈)



자료: DRAM Exchange, IBK투자증권

10월 중순 이후 하락하던
DRAM 현물가격이 2달러
밑에서 다시 반등세를 보임

그림 2. DRAM 스팟가격 동향 (DDR3 2Gb 칩)



자료: DRAM Exchange, IBK투자증권